

# IMO 회원국 감사 내년 9월부터 시행키로

## 회원국 해상안전 및 해양환경보호 등 감사

지난 12월2일 폐막된 제24차 국제해사기구(IMO) 총회에서 그동안 논의돼온 회원국감사제도(MAS : Member State Audit Scheme)를 내년 9월부터 시행하기로 최종 의결했다.

이번에 최종 의결된 회원국감사제도는 각 회원국의 해상안전과 해양환경보호관련 국제협약의 이행실태, 해양안전관리체계의 적정성 등에 대해 국제표준화기구(ISO)의 품질경영체제를 기초로 심사하게 된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항공안전분야에 도입해 성과를 거두고 있는 항공안전평가제도

(USOAP)와 유사한 IMO의 회원국감사제도는 내년 9월부터 2007년 말까지 25개 회원국에 대해 우선 실시된다.

우리나라는 2007년 상반기 중 수감을 목표로 지난 5월 IMO평가대응팀을 신설하고 대책본부를 구성, 해양안전 관리체제에 대한 사전진단, 미비된 법령정비 등 차질없이 준비작업을 수행중이다.

감사시행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국제선의 용선기피, 보험료 상승, 항만국통제와 신조선 수주에서의 불이익 등 해운·조선업계 전반에 걸쳐 심각한 경제적 손실과 국가신인도 하락이 예상된다.

# 해양경찰청, 인도 해안경비대와 MOU 체결

## 국제선 인도양 항행안전과 국제범죄 공조

해양경찰청(청장 이승재)은 지난 11월23일 오전 10시 인천 하얏트 호텔에서 국내 최초로 인도 해안경비대(중장 A.K. Singh)와 MOU(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금번 MOU는 국제성범죄 공동대응 및 양국선박의 항행안전, 인명보호,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우호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이승재 해양경찰청장과 A.K Singh 인도 해안경비대 사령관이 참석하여 서명, 교환하였다.

이는 지난해 10월 노무현 대통령의 인도 방문시 양국정상간 회담에서 양국협력관계 증진의 일환으로 해상치안기관간 해적대응, 해양오염, 수색구

조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그간 해양경찰청은 인도 해안경비대 실무자를 초청하여 사전실무회의를 개최하는 등 MOU체결을 위해 밀도 있는 실무작업을 해왔다.

또한 이번 MOU를 통하여 양 기관은 상호 연락창구를 개설, 정보교환을 활성화하고 매년 정례회의를 개최키로 하는 등 상시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해양경찰청의 업무영역은 말라카해협을 넘어 서남아시아 해상까지 확대하여 이 해역에서의 국제선(연간 물동량 : 약 610만톤) 안전확보는 물론 양국간 포괄적 관계증진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